

금호타이어, 고수익제품 호조에 1분기 최대 매출

ECONOMY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15.5% 증가한 1조262억
6분기 연속 1조원 달성
영업이익은 0.6% 감소**

금호타이어가 신차용 타이어(OE)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사장 정일택·사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4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6% 감소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작년보다 15.5% 증가한 1조 262억원, 순이익은 12.1% 늘어난 1020억원이다.
매출액의 경우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1조원을 달성한 동시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이다.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확대와 교체용(RE) 타이어 시장 성장에 따른 호실적이라고 금호타이어는 분석했다.
금호타이어는 1분기 기준 고인척 제품 판매 비중 42.6%, 전기차(EV) 타이어 OE 납품 비중 17.9%를 달성했다. 올해

전망치는 각각 46%, 26%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목표 매출액을 5조 원으로 설정하고 18인치 이상 고인척 제품 판매 비중 46%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비중 26% 이상 확보 등 비즈니스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솔루스 어드밴스(SOLUS ADVANCE)’를 비롯해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인 ‘엑스타 스포츠 S(ECSTA SPORT S)’, ‘엑스타 스포츠(ECSTA SPORT)’ , ‘엑스타 스포츠 A/S(ECSTA SPORT A/S)’ 출시를 필두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수익성 증진

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8개 공장의 설비 효율화, 추가 설비공간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생산 능력을 6500만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며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를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포스코홀딩스, 그린본드 발행
7억달러 규모…첫 글로벌 채권**

포스코홀딩스는 해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4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2개 트랜치에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이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 발행에 성공한 그린본드는 ESG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하게 된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 소재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최초 제시금리를 5년 물의 경우 미국 국제 5년물 금리에 180bp를 가산하고 10년물의 경우는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에 200bp를 가산해 제시했다. 발행규모는 7억달러로 확정했으며, 최종 가산금리는 137.5bp와 157.5bp로 각각 결정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일 미트림프관세부와 발표이후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발행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으로서 최초로 5년 및 10년 장기를 발행에 성공, 안정적인 미래성장 투자자원을 확보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은행 기아챔피언스카드 3000좌 돌파
출시 한달만…신용카드 첫 가입자 77.3% 차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3월 20일 출시한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KIA 타이거즈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출시 한달만에 3000좌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KIA 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V13)을 기념하며 출시된 카드로, 신규 발급 비중이 77.3%에 달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광주 기아챔피언스카드 입장료를 5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킬러 서비스가 있다. 이 외에도 경기장 내 팀스토어, F&B 매장, 편의점, 일상생활 업종, 5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디자인은 KIA 타이거즈의 상징을 담아 원정 유니폼, 홈 유니폼, 야구공, 마스크 등 총 4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만 19세 이상 개인 본인회원 및 가

족회원이면 발급할 수 있고,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4000원, 해외겸용 1만5000원이다.

김해출 카드사업부장은 “KIA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2025년 V13 우승을 응원하는 팬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PS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본사 직장어린이집 재원생 3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교육설비 및 놀이터 등 시설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다음달 8일에는 원생들을 회사로 초대해 재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실제 근무 중인 사무실을 소개하고,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가족 초청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전KPS는 기존 5세 이하 자녀 기준 24개월까지 사용가능한 육아시간제를 8세이하 자녀 기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제를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전KPS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 도전·혁신”

창사 41주년 기념식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28일 창사 41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속성장하는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의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다고 29일 밝혔다.
기념식은 한전KPS의 발전정비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지난 41년간의 성과를 영상으로 조망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 뒤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

하는 기념사로 마무리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기념사에서 “발전정비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KPS는 전력설비의 단순 정비를 넘어 기술과 고객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창립 41주년을 맞이해 임직원 모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자”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난 41년간 한전KPS는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땀방울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창립 41주년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한전KPS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해 국내외의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에서도 창사 이래 최대인 매출액 1조5343억원, 영업이익 2077억원, 당기순이익 1710억원이라는 재무성과(개별재무재표 기준)를 달성해 명실상부 글로벌 발전정비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LNG용 CO₂ 포집’ 실증플랜트
한전, 국내 최대규모 첫 준공**

한국전력은 29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LNG 발전 1MW 습식 CO₂ 포집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울산시,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및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O₂ 포집기술은 발전소 배출가스 중 CO₂만을 선택적으로 포집해 제거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석탄화력발전의 LNG 전환이 추진되면서 이 기술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소의 배기가스에는 CO₂ 농도가 석탄화력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 포집 비용이 높고, 산소 농도가 높아서 기존 포집기술의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한전은 LNG 발전 맞춤형 CO₂ 흡수제를 개발해 포집 효율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설비는 연간 3000t의 CO₂를 90% 이상 효율로 포집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 아래 한전이 주관하고 5개 발전사 및 대학, 기업이 공동 참여했다.
한전은 LNG 발전 CO₂포집용 흡수제 개발과 공정 설계를 수행했으며, 한국전력기술은 포집 플랜트 기본설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했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1MW급 파일럿 설비를 복합화력과 연계해 포집 효율 90%, 순도 99.9% 이상의 CO₂ 포집을 연속 100시간 이상 달성하는 것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50만t CO₂ 포집이 가능한 상용 플랜트의 기본설계 또한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설비는 지난해 11월 시운전에 착수해 현재 CO₂포집 및 압축 역학 연계 운전 시험을 진행 중이다. 향후 포집된 CO₂는 산업계에 공급되거나 연구 설비에 활용돼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일주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비는 가스발전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인프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9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금 14억7000만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도교육청에 장학기금 전달

14억7000만원 규모…전남교육사랑카드 이용액 적립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9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기금 14억7000만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교육사랑카드는 전남도교육청, NH농협, BC카드사가 협약 체결한 법인 및 개인카드로, 이번 장학기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남교육사랑카드 이용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조성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2억8000만원을 전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오비맥주 광주공장, ‘산업안전보건의 날’ 주간 운영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4월 28일)’을 맞아 자사 3개 생산공장에서 ‘안전주간(Safety Week)’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매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광주와 충북 청주, 경기 이천에 위치한 3개 생산공장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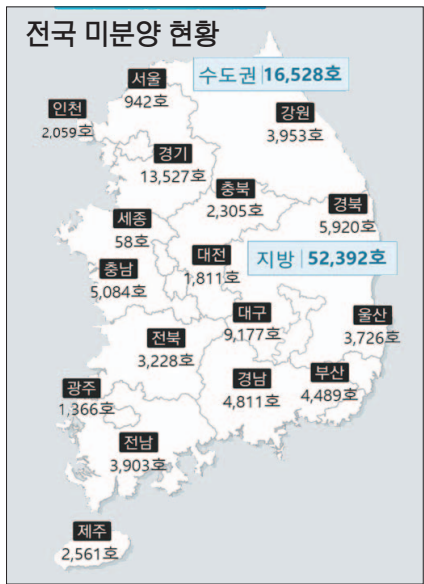
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이번 안전주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안전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현장 안전 중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 28일 전 임직원이 안전선언문과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정현아 기자 aura@

1분기 광주 770가구 분양 전년비 87% 급감

전남 ‘0’ 기록…지역 미분양 5000가구 돌파

올해 1분기 광주지역에 공급된 공동주택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나 급감했다. 전남은 신규 분양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역 미분양 주택은 5000가구를 넘어섰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광주지역 신규 공동주택 분양은 770가구로 지난해 동기 5903가구에 비해 87.0% 감소했다.
전남은 분양 건수가 전무해 지난해 동기 180가구에서 소진됐다.
전국적으로 분양 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1471가구로 작년동기 대비 49.7% 줄었다.
수도권(5972가구)이 71.2% 감소했는데 특히 인천에서는 2522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5% 줄었다. 지방 분양은 29.3% 감소한 1만

5499가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세업에 이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건설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는 등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3월 전국 분양은 8646가구로 전월보다 60.6% 증가했다.
1분기 주택 매매 거래는 총 15만6279건이 이뤄져 작년 1분기보다 12.2% 증가했다.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잠깐 해제의 영향으로 서울의 1분기 거래량(2만5481건)은 63.4% 확대됐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7만7428건)도 30.7% 증가했다.
반면 지방(7만8851건)은 1.6% 감소했다.
3월 거래는 전월 5만698건에서 6만7259건으로 32.7%가 늘었다.
광주와 전남도 30.9% 증가한 2075건,



24.4% 증가한 2087건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광주가 1366가구로 전월보다 0.2% 감소한 반면 전남은 3903가구로 15.1% 늘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920가구로 전월보다 1.6% 줄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